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1부〉 너무나 몰랐던 우리의 이웃

❽ 시내버스, 지하철도 타고싶어요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찾은 케냐 국적의 칸자(Kanza·24)씨가 영문 안내 없는 시내버스 노선표를 보며 당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장→숙소→공장→숙소… '다람쥐 쳇바퀴'

"외출요? 길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비싼 택시를 타고다닐 수도 없고…."

주말이던 지난 23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에서 만난 스리랑카 국적의 비리스(38)씨. 광주시 하남산단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공장이 쉬는 날에도 임시숙소인 쉼터를 떠나지 못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보고 싶은 곳도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데다 영어 노선안내 또한 부실하기 때문이다.

외출요? 까막눈이라 꿈도 못꿔요

한국생활 2년째인 비리스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광주로 직장을 옮겼다. 대구에서 1년 반 이상을 지내면서 버스를 잘못 타고내리는 일을 숱하게 경험했다. 그때마다 택시를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했고 버스비에 택시비까지, 오히려 교통비가 두 배로 들었다. 어느 정도 버스가 익숙해질 무렵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된 비리스씨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광주지역 버스에도 변변한 영어 안내하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가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253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인 154명이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통문제는 출입국 42.7%, 의료 41.5%, 여가생활 39.5% 등의 불편사항을 제치고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버스엔 외국어 안내 하나 없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언어·의료와 함께 꼭 빠지지 않는 불편사항이 교통문제다. 택시는 비싼 요금 때문에, 버스는 외국어 안내가 없고 노선이 복잡해서 선뜻 오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수년씩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쳇바퀴 돌듯 공장과 숙소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오토바이가 유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숙소와 식료품 가게 사이에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뭉크(30·몽골)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 그는 2년 전부터 평동산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회사차량을 타고 다녀서 광주지리에는 익숙하지 않다.

뭉크씨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가 공동으로 타고다니는 오토바이는 오직 식료품 가게와 숙소를 오가는 교통수단인 것이다. 오토바이는 숙소와 공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외국인들과, 단속이 두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들이다.

면허시험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어려운데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언어와는 달리 몽골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언어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국내 체류자 수가 적은 나라는 공식적인 면허시험 언어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달라 운전면허시험도 못봐

또 대부분 면허가 없다 보니 보험가입이 안 된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가 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감에 제출한 외국인 범죄 통계자료에도 교통사범이 2천100건으로 전체의 범죄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통문제는 모든 이주 외국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며 "2012 여수엑스포 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4년째 외국인 노동자 차량 봉사 이승남 씨

4년째 외국인 노동자 차량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승남〈왼쪽〉씨가 2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외국인건강센터 앞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랑 실은 '통원 차량' 달려갑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4년째 차량봉사를 하고 있는 이승남(39)씨는 "광주·전남지역에만 1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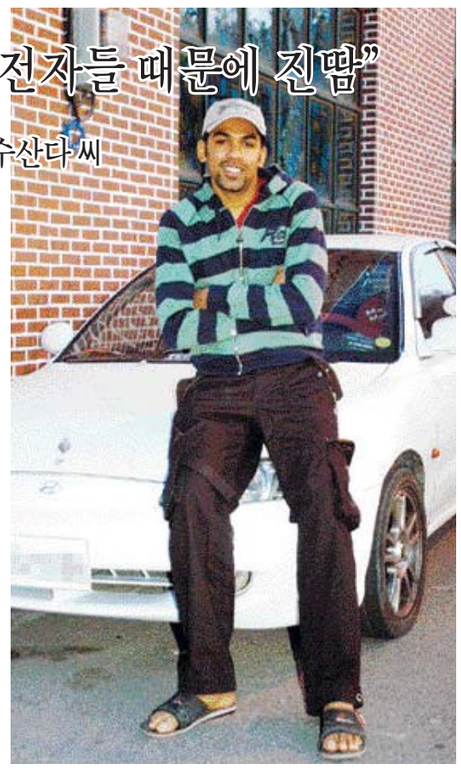
이씨는 5~6명의 차량봉사자들과 매주 돌아가면서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를 찾는 이들의 발이 돼주고 있다. "그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해서 선뜻 봉사를 한다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건강센터가 개소할 당시 '차량자원봉사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나선 경우다. 수년 전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곁에서 지켜본 것도 마음을 먹게 된 계기다.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조합장이기도 한 그는 휴일이 되면 아이들의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를 말끔히 세차한다. 평소 아이들을 태웠던 그의 승합차는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랑의 '통원차량'이 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빨리 빨리' 한국인 운전자들 때문에 진땀"

'마이카'로 외국인 친구들 가이드 자처 수산다 씨



'마이카'를 몰며 능숙한 한국말과 운전솜씨로 외국인 친구들의 가이드를 자처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한국 생활 3년째인 수산다(30·스리랑카)씨는 광주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5개월 전에는 아예 1995년산 중고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했다.

"키가 193㎝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이곳저곳 다녀보고 싶어서 큰 맘먹고 차를 구입했어요." 의사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걸음마 단계라 지인의 도움을 얻어 겨우 등록과 보험가입을 마쳤다. 자가 운전자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처음에는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 운전자들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통편 안내가 부족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표기라도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